

軍에서도 ‘북한 선동 폭동’ 교육 비수에 찔린 민주화운동 자긍심

5·18 왜곡도 넘었다

☞ 역사왜곡 실태

북 출신 신병교육대 강연 물의
지만원·교과서 이어 잇단 왜곡
5·18재단 “무과할 수 없는 일”
국방부에 진상규명 촉구키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과서 5·18 관련 내용 축소 왜곡, 지만원 등 극우세력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이어 군(軍)에서조차 5·18을 왜곡하는 교육이 신병들을 상대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군인권센터와 광승용(22·광주)에 따르면 육군에 입대한 광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북한 이탈주민 초청 교육’를 받던 중 5·18민주화운동, 4·19 혁명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설명을 접했다.

자신을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소개한 강사에게 광씨가 “5·18과 4·19는 이미 대한민국 국호와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혁명으로 평가가 끝난 사안으로 북한이 개입된 폭동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자 강사는 “지난 10년간 이런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광씨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지난 2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당시 교육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당국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에 해당 부대장 명의로 답변을 내 “귀하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군(軍)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신병을 상대로 한 5·18 왜곡 교육 외에도 5·18을 왜곡·축소하는 움직임은 곳곳에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개정·보급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국정)가 대표적이다. 개정 교과서는 5·18 관련 부분에서 기존 교과서와 달리 ‘계엄군’이라는 용어와 ‘계엄군의 무력진압’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 왜곡·축소됐다. 지적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15일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역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사회과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건을 제외시켰다.

내용 면에서도 ‘계엄군으로 광주에 배치된 공수부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자 시민들이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했던 항쟁’이라는 취지로 기술돼야 하지만, ‘대규모 시위 때문에 군이 동원’된 것처럼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식으로 서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9년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념식에서 제창 아닌 합창으로 부르도록 한 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도적인 ‘5·18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신병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5·18을 왜곡하는 강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16일 예정된 5·18 역사 왜곡대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군 당국에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왜곡 교육에 항의한 광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에 대한 왜곡이 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손배소송은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에 이어 후속소송으로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 5개 단체와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개인 9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씨는 인터넷 매체와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주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편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폭 못막은 학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광주지법 “관심 있었다면 지속적 폭행 막을 수 있었다”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광주시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실·PC방 등지에서 같은 반 학생 6명으로부터 100여 차례 폭행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고 하며 학교 측과 광주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해 학생들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요금에 50만원이 나오도록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았고, 수업 중 바지를 벗도록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이 이뤄졌고 대부분 수업·휴식 시간에 발생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다더라면 이를 적발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측은 수차례 특별교육·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은밀하게 행해지는 집단따돌림의 특성에 비춰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집단따돌림을 적발할 수 없다”며 “학교는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굴욕·불안·공포가 심각한 점, 특히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비밀로 금품을 갈취한 점, 피해자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직행버스 상대로 보복·난폭운전 고의사고 내고 폭행한 30대 검거

직행버스를 상대로 보복·난폭운전을 한 끝에 고의 사고를 내고, 운전기사까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 버스를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징역형을 받았던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월에 담양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보복·난폭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모(46)씨가 몰던 직행버스를 추월한 뒤 3차선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박씨는 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직행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 이씨를 10여분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달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버스를 추월할 때 이씨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보복·난폭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모(46)씨가 몰던 직행버스를 추월한 뒤 3차선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박씨는 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직행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 이씨를 10여분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달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버스를 추월할 때 이씨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모(46)씨가 몰던 직행버스를 추월한 뒤 3차선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박씨는 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직행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 이씨를 10여분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달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버스를 추월할 때 이씨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보복·난폭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모(46)씨가 몰던 직행버스를 추월한 뒤 3차선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박씨는 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직행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 이씨를 10여분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달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버스를 추월할 때 이씨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보복·난폭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모(46)씨가 몰던 직행버스를 추월한 뒤 3차선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다.

박씨는 사고 직후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직행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 이씨를 10여분간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달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버스를 추월할 때 이씨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김모(74)씨 등 노인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제지에도 버스가 기사를 폭행했으며, 이후 버스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직행버스가 자신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1월 담양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무모한 차량으로 버스와 사고를 낸 뒤 두주한 혐의(도주차량 등)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영전구에 수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

광주시 광산구는 하남산단 전구생산업체 남영전구에 수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수은램프 제조설비 철거과정에서 다량의 수은 누출사고가 일어난 남영전구 광주공장 내 토양에서 최근 기준치(20mg/kg)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오염된 토양의 위치는 공장 안쪽 화단 등 4곳이며 부피로는 512㎡, 무게로는 700여t이다. 토양정화 명령을 받은 남영전구 측은 오염된 토양을 전량 수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수은 누출 문제가 불거지자 업체 측에 정밀조사를 명령했고 지난 11일에서야 그 결과가 나오자 13일 업체 측에

정화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폐수는 400kg과 오염토양 85.6㎡(200ℓ 드럼 용기 428개)를 수거한 바 있다. 수은에 오염된 토양이 추가로 확인된 것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공장 주변 대기중 수은 농도가 전국 평균(1~3ng)을 최대 7배가량 웃돈 사실도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장 내 토양오염 외에 추가로 인근 부지나 하천으로 수은이 누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대기중 수은 농도의 경우 법적 기준치가 없어 환경부에서 법제화를 준비 중이며 현재는 대기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고생에 대낮 성관계 요구한 70대



○대낮에 공원 옆길을 걷던 여고생에게 다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달미.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공원 옆길에서 여고생 B(16)양에게 접근해 “함께 호텔에 가자”는 말을 수차례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고 달아난 혐의.

○여고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10여대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그는 “내가 그때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맞는데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가물하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야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건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씩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2. 남구 양림동 (토 40평,건25평)
학길초등학교 북측, 근간차량가능
감정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3. 동구 산수동 (토 42평,건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건물 깨끗, 실업주 주택 적격추천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8천5백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지대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3. 동구 계림동 (토 55평, 건 175평)
※ 총 침포 2층~3층 사무실 층주택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4. 동구 중흥동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충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법무실론,
부동산 자격증요인론
부동산 경매 관실 요인론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